

생명을 주는 떡

사회 : 인도자

찬 송 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대 표 기도 가족 중에서

성 경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28-34절

-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네가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는 벌써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믿음이 없기에 찾아와 묻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믿는 이들의 오랜 질문입니다. 아마 지금도 누군가는 또 묻고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28절)” 이것이 그들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방편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29절). 그런데 어느 순간 부터 교회는 믿음보다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들을 모아 놓은 회사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 다. 그 위에 다른 능력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한 사람들은 대체로 표적을 구합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 내린 만나와 같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모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는 표적을 위해 떡을 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분 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없애야 합니다. 더 잘 믿기 위해 어떤 표적을 구하는 모습도 좋지 않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33절)."

기 도 인 도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생 명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찬 송 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중 보 기 도 1.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하도록
2.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주 기 도 문 다 같 이